

연중 제33주일
(평신도 주일 ·
11월 14일)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뚝 짊어렵니까?

강론 자료



초등부 서한석_요한 | 신부_서울대교구 신림동 성당
중고등부 김영식_루가 | 신부_서울대교구 수색 성당

어린이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죠? 이번 달에도 역시 한쭉~욱 신부님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쭉~욱 하니깐, 여러분들 키가 쑥쑥 자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번개치고 천둥치는 광경을 본 적 있으세요? 신부님은 어렸을 때 겁쟁이었어요. 자다가 ‘우르르 쿵쿵’ 하고 비가 오면, 제 방에서 자다 말고 안방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세상 종말이 오면 천둥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무섭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선 사람이 마구 죽어가는 전쟁과 반란의 소문을 듣는다고 해요. 곳곳에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며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가장 겁이 나는 것은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나의 사촌 형, 사촌 오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하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부하기 싫고 또 심부름하기 싫고 동생을 잘 돌보기 싫어도 그냥 예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천둥 번개가 치고, 누가 나를 잡아가려 해도 끄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맡기느냐 이것이 문제겠지요? 신부님이 이야기 하나 해 줄게요.

옛날에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대열에 봉숙이라는 예쁘게 생긴 아이도 있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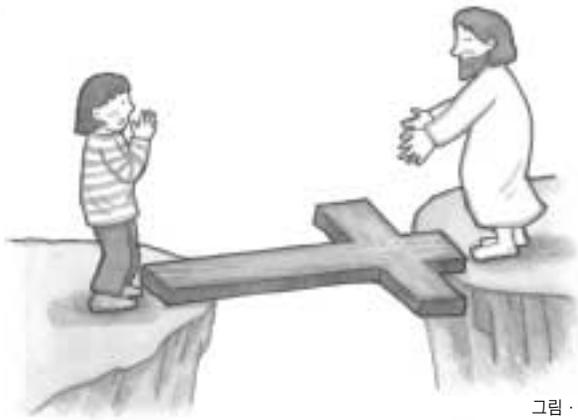


그림 · 백지혜 실비아

그리스도 왕 대축일
(11월 21일)

“이 사람은 유다인의 왕” ‘바보’를 왕이라!

안녕하세요? 이번 주일은 교회 달력으로는 가장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집에 걸린 달력으로 말하자면, 이번 주가 12월 마지막 주쯤 되겠군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주는 교회 달력으로 새해가 되겠지요. 척척 대답하는 것을 보니,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푹푹이들이군요. 우리는 교회의 마지막 주,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나요? 신부님이 이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영상(혹은 사진)으로 보여 줄게요. (이 영화의 뒷부분 예수님의 수난 장면(약 7분)을 편집해 상영한다. 혹은 이 영화 포스터, 예수님의 수난 성화, 사진 등을 아이들에게 보여 줘도 좋다.)

자~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 가시관이에요. 머리에 가시가 꽂혀서 피가 줄줄 흘러나옵니다. 그 피딱지가 굳어서 온통 벌겍게 되었군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좀 보세요. 악당들에게 맞아서 부어 달아올랐네요. 몸은 채찍으로 찍히고, 옷은 너털너털……. 또 코피가 나와서 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기침을 하는데 피가 섞여 나오네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노숙자, 부랑자, 싸움에서 패한 자, 어디서 쫓겨나 맞으면서 황급하게 도망 나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한 마디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나약하고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약해 빠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왕’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지만, 모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시고,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

다. 그런데 뻥뻥 뻥뻥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지고 가는 나무 십자가를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궁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봉숙이가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철물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날카롭게 생긴 톱도 하나 있었어요. 그 순간 뻥뻥이 봉숙이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가게에서 톱을 하나 사자! 그리고 십자가를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자르는 거야. 푸하하하~’

봉숙이는 톱으로 자기 십자가를 조금씩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십자가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하지만 남들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훨씬 더 가벼워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잘랐지요. 그렇게 십자가를 잘라 가며 길을 가고 있었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큰 낭떠러지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아뿔싸! 사람들은 지고 왔던 긴 십자가를 다리 삼아 걸쳐 놓고 큰 낭떠러지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물론 봉숙이의 십자가는 너무 짧아 절벽과 절벽 사이를 이을 수 없었지요. 그제야 봉숙이는 외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는 내가 힘든 일, 내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십자가가 무거워도 우리를 도와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징검다리를 잘 건널 수 있게, 파이팅!!